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차 례

- 1 왜 바뀌었나?
- 2 어떻게 바뀌었나?
- 3 질의 · 응답
-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全文)
- 5 주요 용례

1 왜 바뀌었나?

Ch'ongju 청주



저 이상한
부호는 뭐지?



컴퓨터에서도
쓸 수 없는데...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반달표(ö, ü)와 어긋점(k', t', p', ch')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 따를 수 없는 표기법이다 보니 표기법과 상관없이 제각기 마음대로 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자 표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 로마자 표기의 통일을 위해서는 누구나 따르고 지킬 수 있는 표기법이 필요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계속 유지하면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웠습니다.

- 종전의 표기법은 너무 어려운 표기법이었습니다.
- 유무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에게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종전의 표기법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전대, 종전의 표기법에서는 '도동'을 Todong로 적어야 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도동'을 왜 Todong로 적어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기법이다 보니 표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동'의 두 'ㄷ'은 같은 소리인데
왜 다르게 적어야 하지...

To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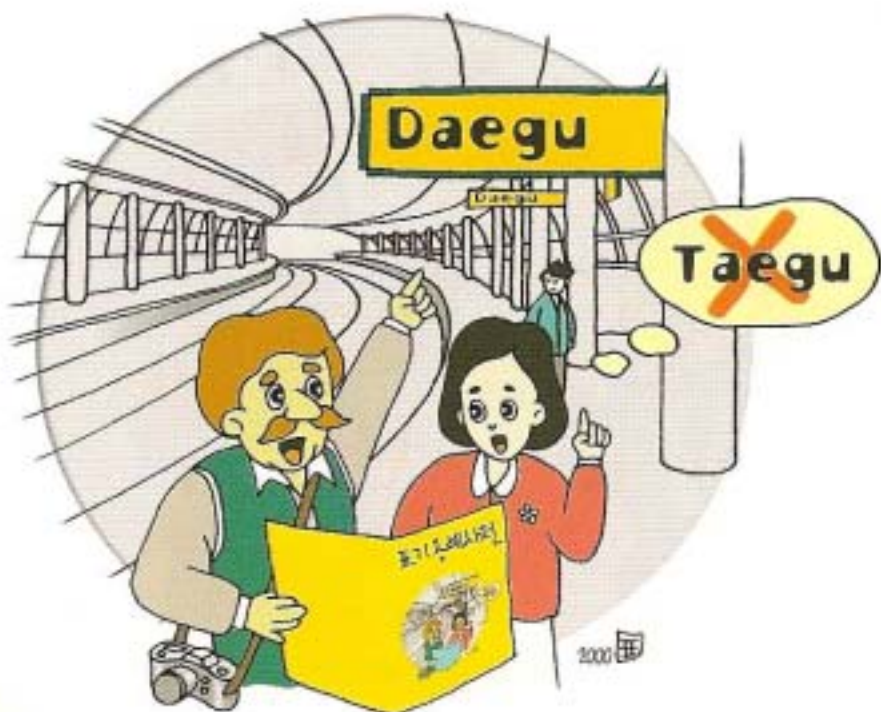
국어에 꼭 필요한 구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표기법에서는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ㄱ, ㄷ, ㅂ, ㅈ'은 k, t, p, ch이고 'ㅋ, ㅌ, ㅍ, ㅊ'은 k', t', p', ch'였는데 어쨌점은 대체로 생략되기 마련이었습니다.
-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그대로 둘 경우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구별되지 않아 대단히 불편합니다.
- 이런 이유들로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어차피 고쳐야 할 표기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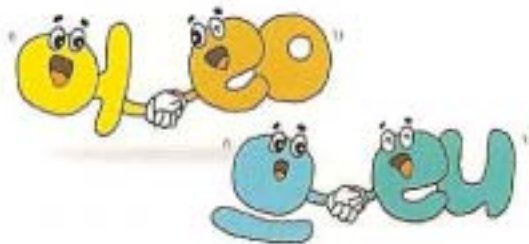
2 어떻게 바뀌었나?

1. '어, 으'는 \bar{o} , \bar{u} 에서 eo, eu로 바뀌었습니다.
2. 'ㄱ, ㄷ, ㅂ, ㅈ'은 k, t, p, ch에서 g, d, b, j로 바뀌었습니다.
3. 'ㅋ, ㅌ, ㅍ, ㅊ'은 k', t', p', ch'에서 k, t, p, ch로 바뀌었습니다.
4. 'ㅅ'은 sh와 s로 나누어 적던 것을 s로 통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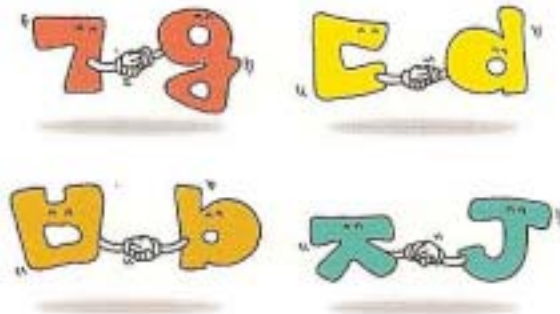
1. '어, 으' 는 ㅑ, ㅓ 에서 eo, eu로 바뀌었습니다.

- 성주 Sōngju → Seongju
- 금곡 Kūmgok → Geumgok



2. 'ㄱ, ㄷ, ㅂ, ㅈ' 은 k, t, p, ch에서 g, d, b, j로 바뀌었습니다.

- 광주 Kwangju → Gwangju
- 대구 Taegu → Daegu
- 부산 Pusan → Busan
- 제주 Cheju → Jeju



3. 'ㅋ, ㅌ, ㅍ, ㅊ'은 'k', 't', 'p', 'ch'에서
k, t, p, ch로 바뀌었습니다.

- 태안 T'aean → Taean
- 충주 Ch'ungju → Chungju

4. 'ㅅ'은 sh와 s로 나누어 적던 것을 s로 통일했습니다.

- 신라 Shilla → Silla
- 실상사 Shilsangsa → Silsangsa

○ 그밖에

표기의 기본 원칙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어의 발음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 한래[할라] Halla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종로[종노] Jongno
- 독립문[동님문] Dongnimmun
- 국민[궁민] gungmin
- 법문[범문] beommun

'ㄱ, ㄷ, ㅂ'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에는 k, t, p로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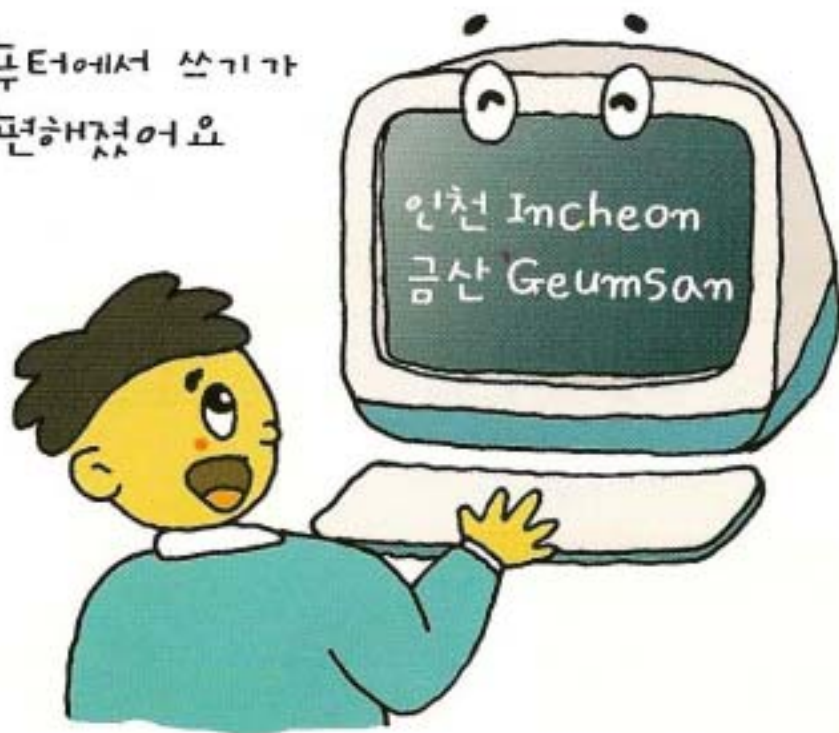
- 곡성 Gokseong
- 무극 Mugeuk

♣ 그 결과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 특수 부호가 없어졌습니다.

컴퓨터 자판에 없어 사용하기 불편했던 ö, ü가 없어졌습니다.
거부감을 주었던 어긋점(k', t', p', ch')도 없어졌습니다.

컴퓨터에서 쓰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 쉬워졌습니다.

종전에는 ‘ㄱ, ㄷ, ㅂ, ㅈ’을 단어 첫머리에서는 k, t, p, ch로 적고 중간에서는 g, d, b, j로 적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위치에 상관 없이 g, d, b, j로 적게 되어 한결 배우고 따르기 쉬워졌습니다.

우리는 첫머리와 중간을
따로 적어 이해하기 어려웠...

Tadohae



우리는 위치에
상관없이 같이 쓰는데...
Dadohae
다도해



○ 국어에 꼭 필요한 구별이 분명해졌습니다.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은 각각 g, d, b, j와 k, t, p, ch로 표기되므로 구별이 분명해졌습니다.

ㄱ	ㄷ	ㅂ	ㅈ
k, g	t, d	p, b	ch, j
ㅋ	ㅌ	ㅍ	ㅊ
k'	t'	p'	ch'



ㄱ	ㄷ	ㅂ	ㅈ
g	d	b	j
ㅋ	ㅌ	ㅍ	ㅊ
k	t	p	ch

"새 표기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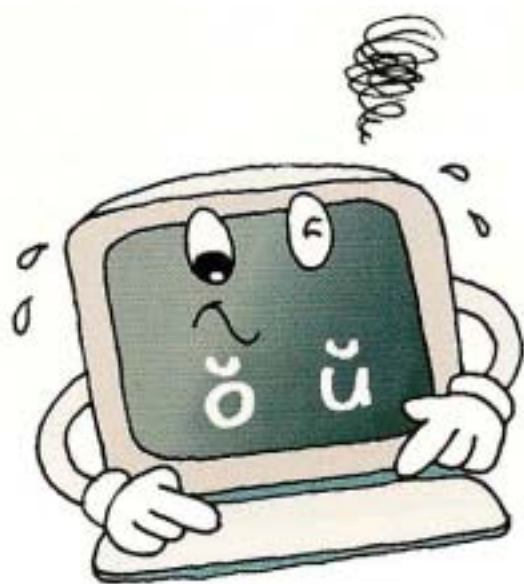


"아, 그렇군요!"

▶ 개정 이유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긋점(') 때문에 컴퓨터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해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등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인명, 회사명에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하는 등 로마자 표기의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만일 그대로 둔다면 로마자 표기의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은 뻔합니다. 누구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로마자 표기법이라야 로마자 표기의 혼란이 해소됩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과의 문제

외국의 지도, 백과사전 등은 대부분 매쿼라이샤워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혼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상당 기간 혼란이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외국의 지도, 백과사전 등에서도 새 표기법에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혼란을 우려해 현재의 표기법을 유지한다면 더 큰 혼란을 두고두고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새 로마자 표기법을 국내외에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홍보

국내에서 Busan, Daegu, Gwangju로 바꾸더라도 외국에 서는 여전히 Pusan, Taegu, Kwangju로 쓰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부터 표기법대로 통일해서 쓰면 외국에서도 점차 한국의 표기법을 따를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외국에서도 새 표기법을 따르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통일해서 쓰니
우리도 따를 수밖에...



▶미래를 위하여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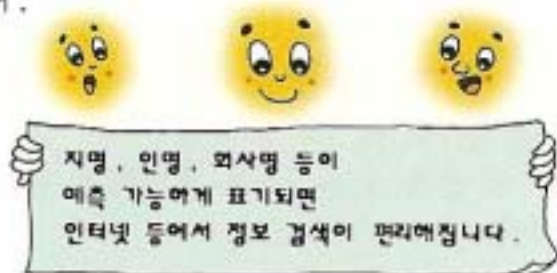
이번 로마자 표기법 개정은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당장 번거롭고 힘들다고 해서 분명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자손 대대로 불편과 고통을 물려 주게 됩니다. 당분간은 혼선을 겪겠지만 새 표기법이 정착되고 나면 불편이 해소되고 오히려 이득이 큼니다. 먼 앞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 개정에 따른 이득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새 표기법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표기법이므로 지명뿐 아니라 인명, 회사명 등이 표기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지명, 인명, 회사명 등이 예측 가능하게 표기되면 인터넷 등에서 정보 검색이 편리해집니다.



▶ 신뢰성

로마자 표기법이 몇 년 후 또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새 표기법은 이제 다시는 개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개정해서도 안 되고 개정할 요인도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새 표기법을 따름으로써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자음

서양인들은 ‘ㄱ, ㄷ, ㅂ, ㅈ’을 k, t, p, ch로 적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을 똑같이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주’와 ‘청주’가 구별되어야 하고, ‘대식’과 ‘태식’, ‘변(卞·邊)씨’와 ‘편(片)씨’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표기하면 ‘ㅋ, ㅌ, ㅍ, ㅊ’과 구별되지만 ‘ㄱ, ㄷ, ㅂ, ㅈ’을 k, t, p, ch로 표기하는 한 ‘ㅋ, ㅌ, ㅍ, ㅊ’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짝지어 지나가 구별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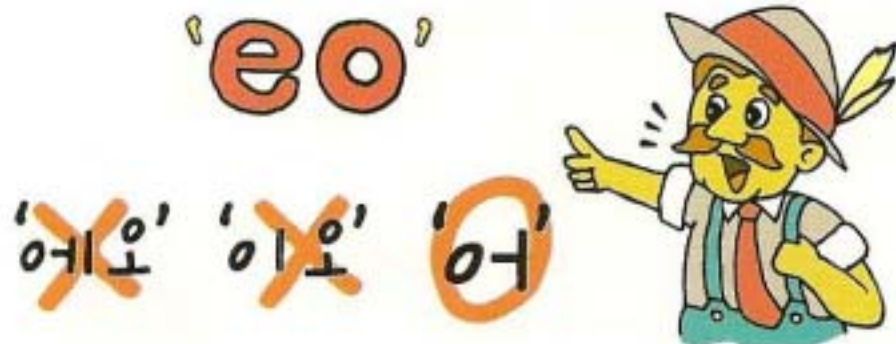
‘ㄱ’은 k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k로 적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ㅋ’으로 시작되는 지명, 인명이 적기 때문에 ‘ㄱ’을 k로 적어도 별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g, d, b와 k, t, p는 체계적으로 계열을 이루기 때문에 ‘ㄱ’만 체계에 어긋나게 k로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ㅋ’으로 시작되는 말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ㅋ’(k)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ㄱ’은 g로 해야 합니다.

▶모음

eo(어), eu(으)는 외국인이 '에오', '에우'로 읽지 않겠습니까?

'어, 으'를 eo, eu로 적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어의 모음이 로마자의 모음 글자보다 많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외국인들에게 eo, eu를 '어, 으'로 읽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Geobukseon(거북선)을 '지오북세온'처럼 읽는 외국인이 있다면 '거북선'으로 발음하도록 알려 주어야 합니다. 로마자는 나라마다 특징적인 음가가 있기 마련이므로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발음을 알려 주고 따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모음

'어'는 한 글자인 u로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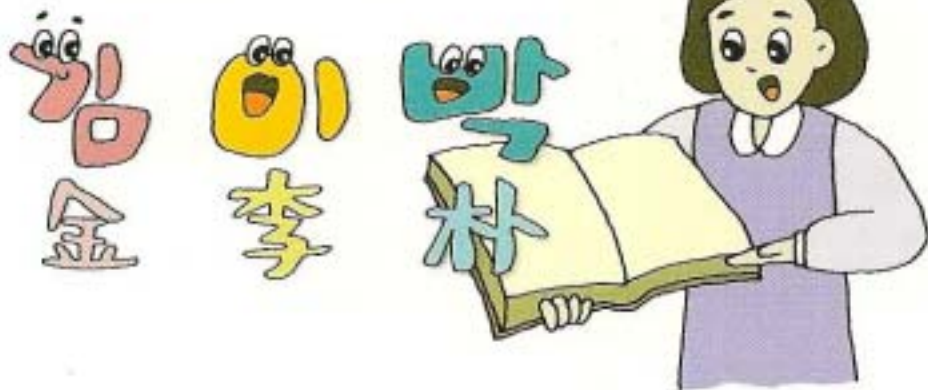
u는 영어에서 흔히 '어' 비슷하게 발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는 영어권 사람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인이 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u는 거의 모든 로마자 사용 언어에서 '우'로 발음합니다.

▶ 성씨

성(姓)도 표기법을 따라야 하나요?

성(姓)도 원칙적으로 표기법에 따라야 하나 성 중에는 표기법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李)'는 표기법에 따르면 I이지만 I로 표기하는 사람은 없고 Lee로 하는 사람이 95%를 넘으며 그 밖에 Rhee, Yi, Ri, Li, Rhie, Lie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이(李)씨'가 이렇게 여러가지로 쓰이다 보니 형제간에도 다른 경우마저 있습니다.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권장하기 어려운 성씨에 한해서 관습적 표기를 표준안으로 삼아 표기 통일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씨' 외에도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닌, 관습적 표기를 표준안으로 해야 할 성씨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여론 수렴을 거쳐 성씨 표기 표준안을 따로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성(姓) 표기는 따로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사명

기존의 회사명, 학교명도 새 표기법에 따라 바꾸어야
합니까?

인명과 마찬가지로 회사명도 그동안 써 온 것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면 써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 회사명을 지을 경우에는 표기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써 온 표기를 버리고 새 표기법에 따르고자 할 경우 적극 환영합니다.



▶ 전자법 (글자 옮기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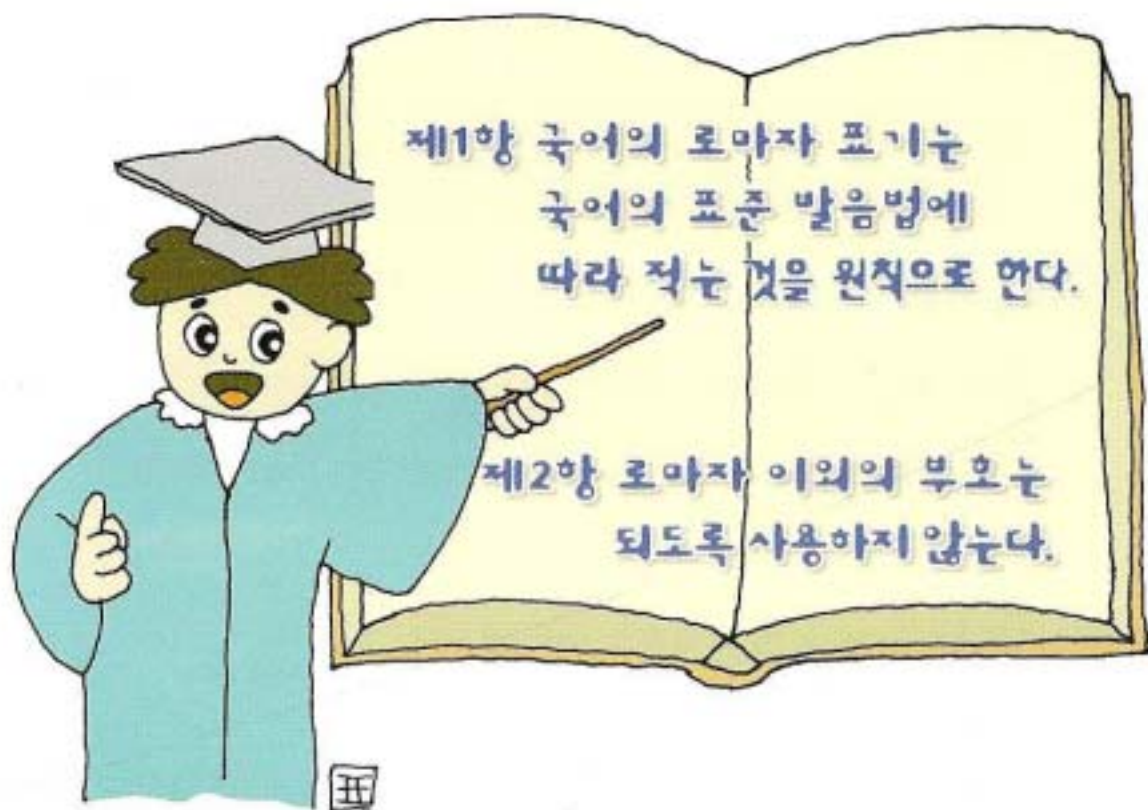
이왕 개정할 바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자법으로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이 읽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로표지판이든 지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신라(新羅)'는 [실라]라고 발음하는데 [실라]라는 발음을 Silla와 같이 보여 주는 것이 외국인이 발음하기에 편합니다. 우리가 '신라'라고 적는다고 해서 글자대로 Sinla로 표기하는 것은 외국인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학술적인 용도 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전자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 7.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전문(全文) 4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ㅚ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ㅖ	ㅠ	ㅞ	ㅟ	ㅚ	ㅜ	ㅟ	ㅚ	ㅜ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ㅜ'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벚곶]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백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붙이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	------------	--------	--------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갈이[가치]	gachi
맞히대[마치대]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종교[조코]	joko	농대[노타]	nota
잡혀[자퍼]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	-----	--------------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	-------	----	--------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의정부시	Uijeongbu-si
제주도	Jeju-do	도봉구	Dobong-gu
양주군	Yangju-gun	삼죽면	Samjuk-myeon
신창읍	Sinchang-eup	당산동	Dangsan-dong
인왕리	Inwang-ri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 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ㄴ’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박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종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3.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5 주요 용례



ㄱ

강원도	Kang-won-do	▶	Gangwon-do
강화도	Kanghwado	▶	Ganghwado
거북선	Kōbuksōn	▶	Geobukseon
거제도	Kōjedo	▶	Geojedo
경기도	Kyōnggi-do	▶	Gyeonggi-do
경북궁	Kyōngbokkung	▶	Gyeongbokkung
경상남도	Kyōngsangnam-do	▶	Gyeongsangnam-do
경상북도	Kyōngsangbuk-do	▶	Gyeongsangbuk-do
경주	Kyōngju	▶	Gyeongju
경포대	Kyōngp'odae	▶	Gyeongpodae
고구려	Koguryō	▶	Goguryeo
고려	Koryō	▶	Goryeo
광주	Kwangju	▶	Gwangju
광화문	Kwanghwamun	▶	Gwanghwamun
국새	Kuksae	▶	Guksae
금강	Kūmgang	▶	Geumgang
김포	Kimp'o	▶	Gimpo
김해	Kimhae	▶	Gimhae

ㄴ

낙동강	Naktonggang	▶	Nakdonggang
남대문	Namdaemun	▶	Namdaemun
남태령	Namt'aeryōng	▶	Namtaeryeong
내장산	Naejangsan	▶	Naejangsan

ㄷ

다보탑	Tabot'ap	▶	Dabotap
대관령	Taegwallyŏng	▶	Daegwallyeong
대구	Taegu	▶	Daegu
대동강	Taedonggang	▶	Daedonggang
대전	Taejŏn	▶	Daejeon
대한민국	Taehanmin-guk	▶	Daehanminguk
덕수궁	Töksugung	▶	Deoksugung
독도	Tokto	▶	Dokdo
독립문	Tongnimmun	▶	Dongnimmun
동강	Tonggang	▶	Donggang
두만강	Tuman-gang	▶	Dumangang

ㅁ

무궁화	Mugunghwa	▶	Mugunghwa
-----	-----------	---	-----------

ㅂ

백제	Paekche	▶	Baekje
부산	Pusan	▶	Busan
불국사	Pulguksa	▶	Bulguksa

ㅅ

서울	Seoul	▶	Seoul
석가탑	Sŏkkat'ap	▶	Seokgatap

ㄷ

다보탑	Tabot'ap	▶	Dabotap
대관령	Taegwallyŏng	▶	Daegwallyeong
대구	Taegu	▶	Daegu
대동강	Taedonggang	▶	Daedonggang
대전	Taejŏn	▶	Daejeon
대한민국	Taehanmin-guk	▶	Daehanminguk
덕수궁	Töksugung	▶	Deoksugung
독도	Tokto	▶	Dokdo
독립문	Tongnimmun	▶	Dongnimmun
동강	Tonggang	▶	Donggang
두만강	Tuman-gang	▶	Dumangang

ㄹ

무궁화	Mugunghwa	▶	Mugunghwa
-----	-----------	---	-----------

ㅂ

백제	Paekche	▶	Baekje
부산	Pusan	▶	Busan
불국사	Pulguksa	▶	Bulguksa

ㅅ

서울	Seoul	▶	Seoul
석가탑	Sŏkkat'ap	▶	Seokgatap

설악산	Söraksan	▶	Seoraksan
속리산	Songnisan	▶	Songnisan
신라	Shilla	▶	Silla

ㅇ

압록강	Am nokkang	▶	Am nokgang
애국가	Aegukka	▶	Aegukga
영산강	Yöngsan-gang	▶	Yeongsangang
완도	Wando	▶	Wando
울릉도	Ullüngdo	▶	Ulleungdo
울산	Ulsan	▶	Ulsan
인천	Inch'ön	▶	Incheon
임진강	Imjin-gang	▶	Imjingang

ㅈ

전라남도	Chöllanam-do	▶	Jeollanam-do
전라북도	Chöllabuk-do	▶	Jeollabuk-do
전주	Chönju	▶	Jeonju
제주	Cheju	▶	Jeju
종로	Chongno	▶	Jongno
종묘	Chongmyo	▶	Jongmyo
지리산	Chirisan	▶	Jirisan
진도	Chindo	▶	Jindo

ㅈ

창경궁	Ch'anggyönggung	▶	Changgyeonggung
창덕궁	Ch'angdökkung	▶	Changdeokgung
창원	Ch'ang-won	▶	Changwon
첨성대	Ch'ömsöngdae	▶	Cheomseongdae
청주	Ch'öngju	▶	Cheongju
춘천	Ch'unch'ön	▶	Chuncheon
충청남도	Ch'ungch'öngnam-do	▶	Chungcheongnam-do
충청북도	Ch'ungch'öngbuk-do	▶	Chungcheongbuk-do

ㅊ

태극기	Tægükki	▶	Taegeukgi
태백산	Tæbaeksan	▶	Tæbaeksan
태종대	Tæjongdae	▶	Tæjongdae

ㅊ

판교	P'an-gyo	▶	Pangyo
포항	P'ohang	▶	Pohang
포천	P'ochön	▶	Pocheon

ㅎ

한강	Han-gang	▶	Hangang
한글	han-gül	▶	hangeul
한라산	Hallasan	▶	Hallasan
홍도	Hongdo	▶	Hongdo
화랑	hwarang	▶	hwarang

- 국립국어연구원은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편찬한 최초의 국어사전인
이 사전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50여만 단어를
수록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중·하 1질/7,328면/전인쇄 삽화/216×282mm)
-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국립국어연구원 가나다전화(02-771-9909)
-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sejong.or.kr>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발행일	2000년 7월
발행처	문화관광부
기획	국립국어연구원☎02-779-8736)
제작	(주)칼라포인트☎02-2237-8585)

